

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가령, 아동들은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를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협력이나 주장적 행동, 또는 자기조절 등을 실제로 해보아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교사 또는 또래 간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경험과 유능성이 결여될 때 종종 학교적응에서 학문적 그리고 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곤 한다(Stright, Gallagher, & Kelley, 2008).

생물생태학적 이론(Bronfenbrenner & Morris, 1998)에 의하면 아동의 세부 속성들은 발달에 따라 아동이 처해 있는 근접 과정 및 맥락과 상호작용하면서 발달적 유능성을 이루어간다. 무엇보다도 영아기와 초기 아동기 동안에 중요한 맥락적 과정은 부모-아동 상호작용이다. 특히 부모-아동 상호작용의 특징 중, 아동에 대한 정서적 지지나 자율적 지지의 양육방식은 아동의 초기 학교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된다(Grolnick & Gurland, 2002; Ryan & Adams, 1995).

이처럼 긍정적 양육 행동과 아동의 학교적응 간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에 대한 엄마의 정서적 지지와 자율적 지지는 아동의 학문적 성취(Grolnick & Ryan, 1989; Pianta & Harbers, 1996; Stright & Neitzel, 2003), 사회적 유능성(Grolnick & Ryan, 1989; Pianta, Nimetz, & Bennett, 1997; Pianta, Smith, & Reeve, 1991), 교사-아동 관계(Barth & Parke, 1993; Pianta et al., 1997; Stright, et al., 2008), 그리고 또래 관계(Parke & Ladd, 1992)와 관련되었다. 그러나 양육과정과 학교생활 적응 간 직접적 관련은 조심스럽게 언급되어야 한다(Collins, Maccoby, Steinberg, Hetherington, & Bornstein, 2000; Vandell, 2000). 왜냐하면 양육과 학교적응 간 관계는 매우 복잡하여 또 다른 변인들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Bates & McFayden-Ketchum, 2000; Gallagher,

2002).

지난 30여 년 동안 사회과학자들은 아동의 행동적 정서적 문제 등의 사회적 적응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양육행동을 결정적인 변인으로 강조해왔다(Kim, Ge, Brody, Conger, Gibbons & Simons, 2003; Shaw, Owens, Giovannelli, & Winslow, 2001). 가령, 적대적 양육과 심리적 통제 양육을 하는 부모들은 아동의 행동을 교묘하게 조정하려 하며, 지나친 비평, 이어지는 불확실한 애정, 죄의식 유도, 제한적인 의사소통과 같은 강압적인 전략을 가지고 아동과 상호작용하는데, 이런 양육의 특징은 아동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Barber, 2001). 그러나 아동 발달과 적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양육의 중요성만을 강조한 입장이 도전을 받아왔다(Rowe, 1994). 즉 양육이 같은 방식으로 또는 같은 정도로 모든 아동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Belsky, 1997, 2005).

Belsky의 변별적 감수성 가설(1997, 2005)에 의하면 양육 경험이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가 아동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의 양육 행동에 대해 아동이 얼마나 탄력적인가 또는 얼마나 민감한가에 따라 아동들은 다르게 변화한다. 즉, 신경계가 환경적 입력에 민감한 정도에 따라 아동들은 다르게 변화하는데, 더욱 민감한 체계를 가진 아동들은 더욱 부적절하게 조절된다. 따라서 이런 아동들은 조절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뿐 아니라 그들을 사회화 시키려는 부모의 노력에 더욱 반응적이 되므로, 다른 어떤 아동들보다 양육에 의해 더욱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전과 경험 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과거 접근은 부정적 경험을 한 일부 아동들의 취약성만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변별적 감수성 가설은 더욱 민감한 신경체계를 가진 아동들이 덜 민감한 아동들보다 이런 부적 경험에 노출되었을 때 더욱 악

화될 수 있으나 긍정적 경험에 노출되었을 때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한다. 이처럼 각각 다른 아동들은 같은 부모로부터 다른 양육을 유발시키며, 다른 아동들은 다른 방식에서 같은 양육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령, 적대적이며 강압적인 양육은 기질적으로 부정적 맥락 경험에 취약할 수 있는 아동들에게 더욱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 더욱 탄력적인 성향의 아동들에게는 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동들로 하여금 양육에 의해 더 또는 덜 영향을 받게 하는 요인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양육과 아동 적응행동에 대한 복잡한 상호작용적 모델에서 이런 요인들이 포함되어야 한다(Collins, et al., 2000).

이런 맥락에서 기질의 특별한 성분이 아동 적응을 예측하기 위해 양육과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Belsky, Hsieh, & Crnic, 1998; Rubin, Hastings, Chen, Stewart, & McNichol, 1998). 즉 부정적 정서성의 기질 특성이 양육과 적응 간 관계를 조절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부정적 반응성의 기질 특성은 사회·정서적 적응과 일관되게 연계되어온 기질의 차원 중 하나로서(Xu, Farver, & Zhang, 2009), 부정적 반응성이 높은 아동들은 외재화·내재화 문제를 발달시킬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Eisenberg, Fabes, Guthrie, Murphy, Maszk, Holmgren, & Suh, 1996).

Kochanska 연구(1995, 1997)에 의하면 학령 전 엄마의 온정적인 양육훈련은 아동들이 공포를 매우 강하게 보였을 때 더 나은 도덕 발달과 연관되었으며, 또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양육 특성과 아동의 문제행동 등의 적응문제는 원만한 기질 특성을 가진 아동보다도 까다로운/부정적 기질을 가진 아동들의 경우 관련을 더욱 보였다(Belsky, 2005; Belsky, et al., 1998; Colder, Lochman, & Wells,

1997; Lengua, Wolchik, Sandler, & West, 2000; Stoolmiller, 2001).

이런 맥락에서 초등학교 일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취약한 기질 특성이 양육과 아동의 적응 간 관계를 조절하는가가 분석되었다(Morris, Silk, Steinberg, Sessa, Avenevoli, & Essex, 2002).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적대적 양육과 아동 문제 행동 간 관계가 아동기질에 의해 조절되었다(Belsky et al., 1998; Rubin et al., 1998). 즉 짜증을 내며 부적 정서를 더 잘 보이는 기질 특성과 낮은 수준의 통제적 조절 특성이 부적응적 행동 발달에 주는 부정적 양육에 대한 영향을 더욱 악화시켰다. 대조적으로 분노와 좌절 등의 부적 정서를 잘 보이지 않는 기질 특성의 아동들은 부정적 양육의 해로운 영향에 더 저항적인 것처럼 보였다. 이런 결과로부터 Belsky의 가설에서 고려되어진 것처럼 부정적 양육이 모든 아동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Rubin et al, 1998).

Stright와 그의 동료들(2008)의 연구에서는 양육 행동과 학령초기 학교적응 간 관계가 기질에 의해 어떻게 조절되는가와 양육의 발달적 변화가 학교적응과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가를 알아보았다. 결과에 의하면 영아기 양육 행동이 학령초기 학교적응과 관련을 보였으며, 까다로운 기질 특성의 아동들이 덜 까다로운 아동들보다 긍정적 양육을 받을 경우, 학문적 유능성, 사회적 기술, 교사관계, 그리고 또래관계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와 같이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특성이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제안되면서(Bates & McFayden-Ketchum, 2000; Gallagher, 2002)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 간 연합이 아동 기질에 의해 어떻게 조절되는가에 대해 관심이 더욱 집중되

고 있다. 서두에서 언급되었듯이 초등학교 일학년 시기는 가정으로부터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기 위한 사회화 훈련이 시작되는 시기이며, 사회적 유능성을 발달시키는 결정적인 전이 시점이 되기도 한다(Stright, et al., 2008). 또한 이 시기의 학교적응은 전반적인 학령기 적응을 예측해주는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Ladd & Troop-Gordon, 2003), 그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어왔다.

이러한 초기 학교적응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현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을 예언해 줄 수 있는 변인 간 관련성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 관련 변인에 대한 탐색은 대부분 단편적으로 진행되었다. 가령, 아동성별이나 부모 변인 및 아동의 심리적 특성 각각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학교적응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김송자, 2005; 김승봉, 2005; 김희수, 2002; 이옥희,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특성에 따라 어머니에게서 받는 양육행동의 영향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Belsky의 변별적 감수성 가설(1997, 2005)에 근거하여 아동변인과 부모변인 간 상호작용효과가 아동의 초기 학교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볼 것이다. 특히 아동의 적응을 더욱 취약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인 부정적 기질 특성을 중심으로 아동의 부정적 반응성이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과 학교적응 간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여아는 남아보다 학교적응의 여러 영역에서 더 높은 적응 수준을 보이며(김송자, 2005), 부모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인다(김승봉, 2005; 김희수, 2002; 이수경, 2004), 한편 아동의 출생순위도 또래나 대인간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흔히 맏이는 뒤에 태어난 아동보다 사교성이나 또래 간 인기도에

서 더 낮은 수준을 보인다(Abramovitch, Corter, Pepler, & Stanhope, 1986; Brody, Stoneman, & Mackinnon, 1982). 즉 뒤에 태어난 아동은 정당한 몫을 갖기 위해 여러 가지 대인간 기술, 가령, 협상력, 적응, 인내 그리고 못마땅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발달시켜야 하는 반면, 맏이에게는 구태여 이런 특성들을 발달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래 간 상호작용 등의 대인간 적응에서 더 낮은 수준을 보인다는 것이다(Miller & Maruyama, 1976). 따라서 현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아동성별과 출생순위를 통제변인으로 넣고 아동의 부정적 반응 특성이 학교적응과 어머니의 양육 간 관계를 조절해 주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까다로운 기질 특성의 아동들은 그러하지 않은 아동들보다 학교적응에서 문제를 보일 수 있다(Belsky, 2005; Belsky, et al., 1998; Colder, et al., 1997; Lengua, et al., 2000; Stoolmiller, 2001). 그러나 이런 특성을 가진 아동들이 부모로부터 온정적이거나 지지적인 긍정적 양육을 받음으로써 학교 적응을 더 잘할 수 있었다(Stright, et al., 2008). 현 연구에서도 아동기질 특성 중, 까다로운 기질 특성으로 볼 수 있는 부정적 반응성을 중심으로(Xu, et al., 2009), 학교적응에 대한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2가지 연구 문제를 제시하여 학교적응에 대한 양육과 기질 간 관련성을 알아볼 것이다. 첫째로,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과 아동의 부정적 기질 특성이 학교적응과 어떤 관련을 보이는가? 둘째로, 학교적응의 하위영역 각각에 대한 긍정적 양육과 기질 간 상호작용 효과는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연구대상 아동들은 한국연구재단의 2008년 중점 연구과제인 [빈곤이 취약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단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들 중 일부이다. 이들은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며, 2010년도가 되었을 때 절반정도의 아동들은 만 7세가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며, 나머지 아동들은 만 8세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다. 3개의 변인을 어머니와 아동의 담임선생님을 통해 측정하는 과정에서 총 350부의 질문지가 어머니와 아동의 각 담임선생님에게 보내졌다. 이 중, 어머니 질문지는 256부, 담임교사 질문지는 204부가 회수되어 모든 과정에 참여한 대상들은 204명 쌍의 어머니와 아동의 각 담임교사들이다. 각각의 질문지 회수율은 약 73%와 58%이다.

연구 대상의 아동 중, 남아가 105명(51.5%)이고 여아가 98명(48.0%)이며, 남아의 평균 연령은 7.5세($SD=.50$), 여아는 7.5세($SD=.52$)이다. 출생 순위를 보면 맏이가 52.5%, 둘째는 27.0%, 셋째는 7.8%이며 외동은 11.8%이다. 부모의 평균 연령은 아버지는 42.6세이고 어머니는 39.8세이다. 아버지의 학력은 23.1%가 고졸, 3.1%가 전문대졸, 62.3%가 대졸, 11.5%가 대학원이상 졸업이었으며, 어머니의 0.8%가 중졸, 23.1%가 고졸, 9.2%가 전문대졸, 60.0%가 대졸, 6.9%가 대학원이상 졸업이었다. 평균 가계수입은 361.23만원($SD=196.78$)이었다.

측정도구

양육태도(Parental Acceptance - Rejection Questionnaire: PARQ)

어머니의 양육 스타일을 측정하기 위하여 Rohner (2005)가 개발한 척도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온정/애정, 공격성/적대감, 무시/무관심, 거부, 그리고 통제의 5개 요인에 대해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평가되고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63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적대감, 무시/무관심, 거부, 그리고 통제 영역을 역코딩 한 후, 온정/애정적인 영역과 합산하여 긍정적 양육태도를 측정하였다. 5개 영역의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더 긍정적 양육태도를 갖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29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7이다.

아동 기질(Children Behavior Questionnaire: CBQ)

아동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Putnam과 Rothbart (2006)의 축약된 기질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는데, 1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총 94문항의 7점 척도이다. Putnam과 Rothbart(2006) 연구에서 사용된 하위영역과 신뢰도 계수는 다음과 같다: 활동수준($\alpha=.75$), 분노/좌절($\alpha=.76$), 접근/긍정적 기대($\alpha=.65$), 주의 집중($\alpha=.75$), 불쾌함($\alpha=.79$), 반응감소/달래기($\alpha=.73$), 공포($\alpha=.68$), 강한 강도의 즐거움($\alpha=.72$), 충동성($\alpha=.72$), 억제적 통제($\alpha=.72$), 낮은 강도의 즐거움($\alpha=.69$), 지각적 민감성($\alpha=.73$), 슬픔($\alpha=.61$), 수줍음($\alpha=.85$), 웃음($\alpha=.71$).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반응성을 중심으로 까다로운 기질을 측정하였다. 분노/좌절, 불쾌함, 공포, 슬픔, 수줍음 차원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반응성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5개의 하위영역 31문항을 사용했는데, 사용된 문항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74이며,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 계수는 분노/좌절이 .77, 불쾌함이 .79, 공포는 .73, 슬픔이 .51, 수줍음은 .72이다.

아동의 학교적응

지성애와 정대현(2006)이 개발한 척도로, 담임교사를 통해 초등 1, 2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을 측정하며, 총 35문항으로 5점 척도로 평가된다. 입학 4-5개월 후 각 담임 교사에게 질문지를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을 측정했다. 지성애와 정대현(2006)연구에서 사용된 각 하위영역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학교생활 적응이 .97, 학업수행적응이 .96, 또래적응이 .96, 교사적응이 .84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6이며, 각 하위영역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학교생활적응이 .91, 학업수행적응이 .94, 또래적응이 .95, 교사적응이 .83이다.

절차 및 분석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학교적응은 2010년 7월부터 11월에 걸쳐 측정되었다. 각 아동의 가정으로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을 측정하는 설문지와 아동 기질 및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설문지가 발송되었고, 어머니가 직접 작성한 후 반송하였다. 아동의 학교적응을 측정하는 설문지는 아동이 입학 후 또는 아동이 2학년이 된 지 4-5개월이 지난 다음 아동의 각 학교 담임교사에게 설문에 대한 설명서와 같이 발송되었다.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적응상태를 관찰한 후 담임교사들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한 후 반송하였다.

아동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 그리고 학교적응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학교적응에 대한 관련 변인 및 변인 간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과 출생순위를 통제 변인으로 넣고 학교적응의 각 하위영역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긍정적 양육태도, 아동 기질의 부정적 반응성, 학교적응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각 변인의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각 변인과 그 하위영역 별 평균값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고, 학교적응과 각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보면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은 학교생활적응($r=.18$), 학업수행적응($r=.24$), 또래적응($r=.20$), 교사적응($r=.22$)에서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나, 아동의 부정적 반응성과는 어떤 상관도 보이지 않았다. 아동의 부정적 기질 특성은 학교적응 전반에 걸쳐 어떤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학교생활적응은 학업수행적응($r=.63$), 또래적응($r=.61$), 교사적응($r=.31$)과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학업수행적응은 또래적응($r=.71$), 교사적응($r=.61$)과 $p<.01$ 수준에서, 그리고 또래적응은 교사적응($r=.53$)과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표 1.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n=202$)

변인	평균	편차	점수 범위
긍정적 양육	3.15	.30	2.00-3.73
분노/좌절	3.58	1.12	1.33-6.83
아동 불쾌	3.68	1.23	1.00-7.00
동 공포	4.39	1.17	1.17-7.00
기 슬픔	4.14	.89	2.00-6.86
질 수줍음	2.89	.97	1.17-6.00
부정적 반응성	3.80	.70	1.72-5.55
학교적응			
학교생활적응	3.74	.78	1.36-5.00
학업수행적	3.78	.83	1.09-5.00
또래적응	3.68	.89	1.13-5.00
교사적응	3.91	.74	1.60-5.00

표 2. 각 변인 간 상관관계(n=204)

	1	2	3	4	5	6
1. 긍정 양육	1					
2. 부정적 반응성	-.08	1				
3. 학교생활 적응	.18**	.08	1			
4. 학업수행 적응	.24**	-.02	.63**	1		
5. 또래 적응	.20**	.01	.61**	.71**	1	
6. 교사 적응	.22**	-.04	.31**	.61**	.53**	1

* $p < .05$, ** $p < .01$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각 변인들의 영향 및 변인 간 상호작용 효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통제변인으로서 1단계에서 성별과 출생순위를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부정적 반응성과 긍정적 양육을, 3단계에서는 부정적 반응성 X 긍정적 양육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었다. 1단계에서 통제변인으로 투입된 아동의 성별은 학교생활적응을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예측해 주었으며,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12%정도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2단계에 투입된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p < .01$ 수준에서 학교생활적응을 유의미하게 예측해 주었으나, 부정적 반응성은 marginal한 유의미성을 나타냈다($p = .08$). 3단계에서 부정적 반응성과 긍정적 양육 간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긍정적 양육은 학교생활적응의 예측요인으로 4.7%의 설명력을 보였다.

표 3.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각 변인들의 영향 및 부정적 반응성과 긍정 양육의 상호작용 분석

	B	SEB	β	t	R ² change
1단계					.120***
성별	.632	.143	.317	4.429***	
형제순위	-.168	.109	-.111	-1.550	
2단계					.047**
성별	.625	.140	.314	4.454***	
형제순위	-.203	.107	-.134	-1.899+	
부정적 반응	.128	.073	.123	1.747+	
긍정 양육	.193	.070	.194	2.747**	
3단계					.012
성별	.616	.140	.309	4.408***	
형제순위	-.208	.106	-.137	-1.953*	
부정적 반응	.140	.073	.136	1.919+	
긍정 양육	.199	.070	.199	2.834**	
부정적 반응 X 긍정 양육	.098	.063	.109	1.553	

+ $p < .09$, * $p < .05$, ** $p < .01$, *** $p < .001$

표 4. 학업수행적응에 대한 각 변인들의 영향 및 부정적 반응성과 긍정 양육의 상호작용 분석

	B	SEB	β	t	R ² change
1단계					.042*
성별	.324	.148	.164	2.197*	
형제순위	-.160	.112	-.107	-1.425	
2단계					.046**
성별	.296	.145	.150	2.034*	
형제순위	-.186	.111	1.124	-1.685+	
부정적 반응	.002	.076	.002	.024	
긍정 양육	.214	.073	.216	2.934**	
3단계					.022*
성별	.284	.144	.144	1.971*	
형제순위	-.193	.110	-.129	-1.762+	
부정적 반응	.019	.075	.019	.257	
긍정 양육	.222	.072	.224	3.062**	
부정적 반응 X 긍정 양육	.134	.065	.150	2.050*	

+ $p < .09$, * $p < .05$, ** $p < .01$

학업수행적응에 대한 각 변인들의 영향 및 변인 간 상호작용 효과

학업수행적응에 대한 통제변인으로서 1단계에서 성별과 출생순위를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부정적 반응성과 긍정적 양육을, 3단계에서는 부정적

반응성 X 긍정적 양육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었다. 표 4에서 보면 성별은 $p < .05$ 수준에서 학업수행적응에 대해 유의미하게 예측했으나, 형제순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별은 학업수행적응에 대해 약 4.2%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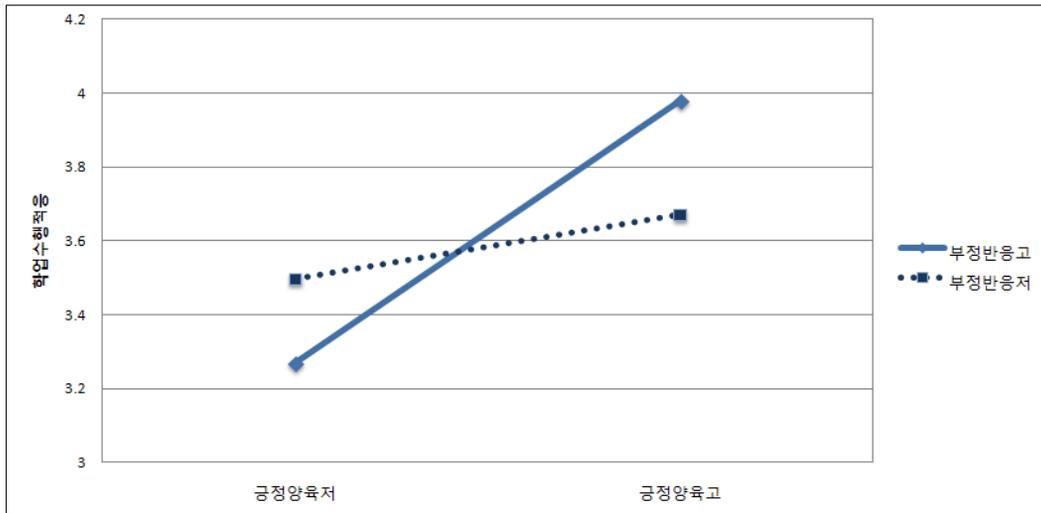


그림 1. 학업수행적응에 대한 부정적 기질 특성과 긍정적 양육 간 상호작용 효과

설명력을 보였다. 긍정적 양육태도는 $p < .01$ 수준에서 학업수행을 유의미하게 예측해주었으며, 약 4.6%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그러나 부정적 반응성은 학업수행적응을 유의미하게 예측해주지 못했다. 3단계에서 투입된 부정적 반응성과 긍정적 양육 간 상호작용은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약 2.2%의 설명력을 보였다.

그림 1에 부정적 반응성과 긍정적 양육 간 상호작용 효과가 제시되어 있다. 그림1에서 보면 긍정적 양육이 낮은 상황에서는 부정적 반응성이 높은 아동들이 낮은 아동들보다 학업수행적응 수준이 낮은 반면, 긍정적 양육이 높은 상황에서는 부정적 반응성이 높은 아동들이 그러하지 않은 아동들보다 학업수행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래적응에 대한 각 변인들의 영향 및 변인 간 상호작용 효과

또래적응에 대한 통제변인으로서 1단계에서 성별과 출생순위를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부정적 반응성과 긍정적 양육을, 3단계에서는 부정적 반응

성 X 긍정적 양육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었다. 또래적응에 있어서 성별은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형제순위에서는 어떤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또래적응에 있어서 여아가 남아보다 더 잘 하였으나, 출생순위에 따라 어떤 차이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은 $p < .01$ 수준에서 또래적응을 예측해 주었으나, 부정적 반응성은 유의미하게 예측해 주지 못했다. 부정적 반응성과 긍정적 양육 간 상호작용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래적응에서 성별은 5.2%, 긍정적 양육은 4.3%의 설명력을 보였다.

교사적응에 대한 각 변인들의 영향 및 변인 간 상호작용 효과

교사적응에 대한 통제변인으로서 1단계에서 성별과 출생순위를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부정적 반응성과 긍정적 양육을, 3단계에서는 부정적 반응성 X 긍정적 양육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었다. 교사적응에 있

표 5. 또래적응에 대한 각 변인들의 영향 및 부정적 반응성과 긍정 양육의 상호작용 분석

	B	SEB	β	t	R ² change
1단계					.052*
성별	.395	.146	.202	2.705**	
형제순위	-.133	.111	-.090	-1.202	
2단계					.043*
성별	.373	.144	.191	2.590*	
형제순위	-.158	.110	-.106	-1.444	
부정적 반응	.16	.075	.015	.208	
긍정 양육	.206	.072	.210	2.851**	
3단계					.009
성별	.365	.144	.187	2.537*	
형제순위	-.163	.110	-.110	-1.489	
부정적 반응	.027	.076	.027	.359	
긍정 양육	.211	.072	.214	2.911**	
부정적 반응 X 긍정 양육	.083	.065	.094	1.276	

* $p < .05$, ** $p < .01$

표 6. 교사적응에 대한 각 변인들의 영향 및 부정적 반응성과 긍정 양육의 상호작용 분석

		B	SEB	β	t	R ² change
1단계						.019
	성별	.268	.151	.135	1.776+	
	형제순위	.069	.114	.046	.602	
2단계						.037*
	성별	.239	.149	.121	1.603	
	형제순위	.055	.114	.036	.481	
	부정적 반응	-.061	.078	-.059	-.781	
	긍정 양육	.177	.075	.178	2.365*	
3단계						.010
	성별	.231	.149	.116	1.548	
	형제순위	.049	.113	.033	.436	
	부정적 반응	-.049	.078	-.047	-.620	
	긍정 양육	.182	.075	.182	2.428*	
	부정적 반응 X 긍정 양육	.089	.068	.099	1.319	

+ $p < .09$, * $p < .05$

어서 성별은 marginal 하게 유의미했으며($p=.07$), 출생순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긍정적 양육은 $p < .05$ 수준에서 교사적응을 예측해 주었으나, 부정적 반응성은 예측해 주지 못했다. 부정적 반응성과 긍정적 양육 간 상호작용 효과도 보이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학령초기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아동기질의 부정적 반응성과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 간 관계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즉 학교 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그리고 교사적응에 있어서 아동의 부정적 반응성과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 간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여 아동기질이 학교적응의 여러 영역과 어머니 양육 간 관련성을 조절하는가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는 3가지로 구분하여 총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4가지 학교적응 영역 중, 학업수행적응에서만 양육과 아동기질 간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즉 아동기질의 부정적 반응성과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 간 상호작용 효과는 학업수행적응 영역에서만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했으며, 학교생활적응, 또래적응 그리고 교사적응 영역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림 1에서 보듯이, 긍정적 양육이 낮은 상황에서는 부정적 반응성이 높은 아동들이 낮은 아동들보다 학업수행적응 수준이 낮은 반면, 긍정적 양육이 높은 상황에서는 부정적 반응성이 높은 아동들이 그러하지 않은 아동들보다 학업수행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선행연구(Stright, et al., 2008)에서 보인 것처럼 부정적 반응성이 높은 까다로운 기질 특성의 초등 일학년 아동이 그러하지 않은 아동들보다 엄마의 긍정적 양육 행동으로부터 더 높은 학문적 성취를 보였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이는 아마도 민감하고 까다로운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어머니의 적절한 정서적 지지와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전반적인 학교적응에 대한 어머니의 보살핌을 긍정적으로 더 지각할 수 있기 때

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초등 일학년 아동의 부정적 기질 특성과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 행동간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Morris 등(2002)의 연구에 의하면, 짜증을 내며 부적 정서를 더 잘 보이는 부정적 기질 특성은 아동이 부적응적 행동을 발달시키는데 있어서 부정적 양육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반면, 분노와 좌절 등의 부적 정서를 잘 보이지 않는 기질 특성의 아동들은 부정적 양육의 해로운 영향에 더 저항적인 것처럼 보였다는 결과와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Belsky의 변별적 감수성 가설(1997, 2005)에서처럼 양육 경험이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가 아동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해 아동이 얼마나 탄력적인가 또는 얼마나 민감한가에 따라 아동들은 다르게 변화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즉, 신경계가 환경적 입력에 민감한 정도에 따라 아동들은 다르게 변화하는데, 더욱 민감한 체계를 가진 아동들은 더욱 부적절하게 조절되므로, 이런 아동들은 조절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뿐 아니라 그들을 사회화 시키려는 부모의 노력에 더욱 반응적이 되므로, 다른 어떤 아동들보다 양육에 의해 더욱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업 수행을 제외한 학교적응의 다른 영역, 가령 학교생활적응, 또래적응 그리고 교사적응에 있어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Stright, et al., 2008)와는 다른 결과로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학업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나 가치부여에서 초래되는 현상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다. 가령, 어머니들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이나 2학년으로 올라가는 아동들에게 학교생활 규칙이나 또래 및 선생님 관계에 대한 가르침보다는 공부에 대한 훈육을 더 강조할 수 있기 때

문에 학업수행 영역에서만 긍정적 양육과 아동의 반응성 간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로,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이 학교적응 전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예측 요인으로 유의미했다. 학교생활적응에는 4.7%, 학업수행적응에는 4.6%, 또래적응에는 4.3%, 그리고 교사적응에는 3.7%의 영향력을 보였다. 즉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아동들은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그리고 교사적응에서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부모-아동 상호작용의 특징 중, 아동에 대한 정서적 지지나 자율적 지지의 양육방식은 아동의 학령초기 학교적응과 일관되게 관련된다는 연구결과(Ryan & Adams, 1995; Grolnick & Gurland, 2002)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한 엄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학문적 성취(Grolnick & Ryan, 1989; Pianta & Harbers, 1996; Stright & Neitzel, 2003), 사회적 유능성(Grolnick & Ryan, 1989; Pianta, et al., 1997; Pianta, et al., 1991), 교사-아동 관계(Barth & Parke, 1993; Pianta et al., 1997; Stright, et al., 2008), 그리고 또래 관계(Parke & Ladd, 1992)와 관련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들과도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및 온정적 수용을 포함하는 긍정적인 양육은 아동으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을 가지게 하여 여전히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학교생활을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 연구결과에서 뿐 아니라 여러 선행연구(Pianta & Harbers, 1996; Stright, et al., 2008; Stright & Neitzel, 2003)에서 나온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 행동은 초등 1,2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임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볼 수 있다.

셋째로,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학교생활적응, 학

업수행적용, 또래적용의 영역에서 더 높은 수준의 적응을 보였으며 교사적용에서는 marginal하게 차이를 보였다.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학교 규칙 등을 더 잘 준수한다는 결과(김승봉, 2005; 김송자, 2005)와 같은 맥락이다. Rubin 등(1998)의 연구와 Belsky 등(1998)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을 받은 3세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더 많은 외재화 문제행동을 보였는데, 이런 결과를 통해 생의 이른 시기부터 사회적 적응에서 성차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부모들이 남아들의 활동성이나 능동적 행동특성들을 여아들의 그것보다 수용적으로 지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양육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남아들은 과격한 행동이나 지나친 활동성을 억제시키는 훈련보다는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환경조건에서 성장하면서 생활 규칙 등을 무시하는 특성을 여아보다 더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후 학교생활적응에서 더 낮은 수준을 보일 수 있다.

한편 아동의 부정적 반응성과 출생순위는 학교 적응을 유의미하게 예측해주지 못했다. 아동의 부정적 반응성은 기질의 하위영역 중, 분노/좌절, 슬픔, 공포, 불쾌, 수줍음들을 측정된 것의 총합으로 이런 부정적 정서반응이 초등학교 1,2학년 아동들의 학교적응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출생순위도 학교적응과 어떤 관련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맏이보다 뒤에 태어난 아동들이 사교성이나 또래관계에서 더 적응적이라는 연구 결과들(Abramovitch, et al., 1986; Brody, et al., 1982)을 지지해 주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아동의 이런 특성들이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되면서 학교적응 영역에서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수행적용 영역에서만 어머니의 양육과 아동의 부정적 반응성 간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나, 이는 기존의 유전과 경험 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바라본 아동의 기질적 취약성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할 수 있다. 즉 더욱 민감한 신경체계를 가진 아동들이 덜 민감한 아동들보다 부정적 경험에 노출되었을 때 더욱 악화될 수 있으나 긍정적 경험에 노출되었을 때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까다로운 기질 특성의 아동들을 보다 긍정적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의 부정적 반응성과 어머니의 양육 간 상호작용효과가 아동의 학업수행에서만 나타났다는 점은 무척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 살펴보아야 할 문제들을 두 가지로 제안하면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첫째로 현 연구에서는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특성을 부정적 반응성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동의 낮은 억제적 조절 특성이나 지나친 감각 추구적 기질 특성 등도 여러 영역에서의 적응과 관련되어지기 때문에(Xu, et al., 2009) 이후 연구에서는 이런 기질 특성들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양육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여러 발달 양상은 보다 다양한 변인 간 역동적 관계를 통해 진행될 것이므로, 어머니의 양육을 포함한 학교적응과 관련된 변인 간 관련성을 좀 더 종단적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러 특성들 간 상호 변화 정도와 이들 간 상호작용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분석기법을 통해 다각적인 차원에서 변인 간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후 연구문제를 통한 보완점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 연구에서 나온 결과는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아동들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를 미약하게나마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으며, 아울러 초등학교 1,2학년 아동의 초기 학교생활에서 학업을 더욱 잘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이 관련된다는 것을 제안해 주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송자(2005).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봉 (2005).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동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수 (2002). 부모의 맞벌이여부가 초등학생 자녀의 자아개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경 (2004). 학교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옥희(2010).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사회적 능력이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성애, 정대현 (2006). 초등 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7(1), 1-15.
- Abramovitch, R., Corter, C., Pepler, D., J., & Stanhope, L. (1986). Sibling and peer interaction: A Final follow up and a comparison. *Child Development*, 57, 217-229.
- Barber, B. K. (Ed.). (2001).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th, J. M., & Parke, R. D. (1993). Parent-child relationship influences on children's transition to school. *Merrill-Palmer Quarterly*, 39, 173-195.
- Bates, J. E., & McFadyen-Ketchum, S. (2000). Tempera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 as interacting factors in children's behavioral adjustment. In V.Molfese & D.Molfese(Eds.), *Temperament and personality development across the lifespan* (pp. 141-176). Mahwah, NJ: Erlbaum.
- Belsky, J. (1997). Variation in susceptibility to environmental influence: An evolutionary argument. *Psychological Inquiry*, 8, 230-235.
- Belsky, J. (2005).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rearing influence: An Evolutionary hypothesis and some evidence. In B. J. Ellis & D. F. Bjorklund (Eds.), *Origins of the social mind: Evolutionary psychology and child development* (pp.139-163). New York: Guilford Press.
- Belsky, J., Hsieh, K.-H., & Crnic, K. (1998). Mothering, fathering, and infant negativity as antecedents of boys' externalizing problems and inhibition at age 3 years: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rearing experi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0, 301-319.
- Brody, G., H., Stoneman, Q., & Mackinnon, C. E. (1982). Role asymmetries in interactions among school-aged children, their younger siblings, and their friends. *Child Development*, 2, 21-75.
- Bronfenbrenner, U., & Morris, P. (1998). The ecology of developmental processes. In W. Damon (Series Ed.) & R. M. Lerner (Vol.

-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1. Theoretical models human development* (5th ed., pp.993-1028). New York: Wiley.
- Colder, C. R., Lochman, J. E., & Wells, K. C. (1997). The moderating effects of children's fear and activity level on relations between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hood symptomatolog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5*, 251-263.
- Collins, W. A., Maccoby, E. E., Steinberg, L., Hetherington, E. M., & Bornstein, M. H. (2000). Contemporary research on parenting: The case for nature and nurture. *American Psychologist, 55*, 218-232.
- Eisenberg, N., Fabes, R. A., Guthrie, I. K., Murphy, B. C., Maszk, P., Holmgren, R., & Suh, K. (1996).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problem behavior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8*, 141-162.
- Gallagher, K. C. (2002). Does child temperament moderate the influence of parenting on adjustment? *Developmental Review, 22*, 623-643.
- Grolnick, W. S., & Gurland, S. T. (2002). Mothering: Retrospect and prospect. In J. P. McHale & W. S. Grolnick (Eds.), *Retrospect and prospect in the psychological study of families* (pp. 5-33). Mahwah, NJ: Erlbaum.
- Grolnick, W. S., & Ryan, R. M. (1989). Parental styles associated with children's self regulation and competence in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 143-154.
- Kim, I. J., Ge, X., Brody, G. H., Conger, R. D., Gibbons, F. X., & Simons, R. L. (2003). Parenting behaviors and the occurrence and co-occurrence of depressive symptoms and conduct problems among African American childre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 571-583.
- Kochanska, G. (1995). Children's temperament, mothers' discipline, and security of attachment: Multiple pathways to emerging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6*, 597-615.
- Kochanska, G. (1997). Multiple pathways to conscience for children of different temperaments: From toddlerhood to age 5. *Developmental Psychology, 33*, 228-240.
- Ladd, G. W., & Troop-Gordon, W. (2003). The role of chronic peer difficulties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problems. *Child Development, 74*(5), 1344-1367.
- Lengua, L. J., Wolchik, S. A., Sandler, I. N., West, S. G. (2000). The additive and interactive effects of parenting and temperament in predicting adjustment problems of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 232-244.
- Miller, N., & Maruyama, G. (1976). Ordinary position and peer popular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123-131.
- Morris, A. S., Silk, J. S., Steinberg, L., Sessa, F. M., Avenevoli, S., & Essex, M. (2002). Temperamental vulnerability and negative parenting as interacting predictors of child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 64, 461-471.
- Parke, R. D., & Ladd, G. W. (1992).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s of linkage*. Hillsdale, NJ: Erlbaum.
- Pianta, R. C., & Harbers, K. L. (1996). Observing mother and child behavior in a problem-solving situation at school entry: Relations with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4*, 307-322.
- Pianta, R. C., Nimetz, S. L., & Bennett, E. (1997). Mother-child relationships,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school outcomes in preschool and kindergart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 263-280.
- Pianta, R. C., Smith, N., & Reeve, R. E. (1991). Observing mother and child behavior in a problem-solving situation at school entry: Relations with classroom adjustment. *School Psychology, Quarterly, 6*, 1-15.
- Putnam, S. P., & Rothbart, M. K. (2006). Development of Short and Very Short Forms of the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7*(1), 103-113.
- Rohner, R. P. (2005).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PARQ): Test manual. In R. P. Rohner & A. Khaleque (Eds.),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4th ed., pp. 43-106). Storrs, CT: Rohner Research Publications.
- Rowe, D. (1994). *The limits of family influence: Genes, experience, and behavior*. New York: Guilford.
- Rubin, K. H., Hastings, P., Chen, X., Stewart, S., & McNichol, K. (1998). Intrapersonal and maternal correlates of aggression, conflict,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toddlers. *Child Development, 69*, 1614-1629.
- Ryan, B. A., & Adams, G. R. (1995). The family-school relationship model. In B. A. Ryan, G. A. (Eds.), *The family-school connec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 3-28). Thousand Oaks, CA: Sage.
- Shaw, D. S., Owens, E. B., Giovannelli, J., & Winslow, E. B., (2001). Infant and toddler pathways leading to early externalizing behavio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0*, 36-43.
- Stoolmiller, M. (2001). Synergistic interaction of child manageability problems and parent-discipline tactics in predicting future growth in externalizing behavior for boys. *Developmental Psychology, 37*, 814-825.
- Stright, A. D., Gallagher, C. G., & Kelley, K. (2008). Infant Temperament Moderates Relations Between Maternal Parenting in Early Childhood and Children's Adjustment in First Grade. *Child Development, 79*(1), 186-200.
- Stright, A. D., & Neitzel, C. (2003). Beyond parenting: Coparenting and children's classroom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 31-40.
- Vandell, D. L. (2000). Parents, peer groups, and other socializing influ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36*, 699-710.
- Xu, Y., Farver, J. A. M., & Zhang, Z. (2009).

Temperament, Harsh and Indulgenting Parenting, and Chinese Children's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80(1), 244-258.

1차 원고 접수: 2011. 04. 15

수정 원고 접수: 2011. 05. 13

최종 게재 결정: 2011. 05. 14

The Mediating Role of Child's Temperament on Early School Adjustment and Mother's Parenting Attitudes: On the Negative Reactivity of Temperament

Su-chung Kim

The Center for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eumjoo Kwak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role of children's negative temperament characteristic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school adjustment and mothers' parenting attitudes. The participants were 124 pairs of mothers and classroom teachers of children. Children's temperaments and mothers' parenting attitudes were measured using mothers' reports and school adjustment was measured via reports of each child's school teacher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based on the reports by the parents and teachers. The findings showed that in terms of academic performance adjustment specifically, there was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children's negative temperament characteristics and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no indications of interaction effects within the domains of school life adjustment, peer adjustment, and teacher adjustment. Additionally, girls displayed a higher level of school adjustment and its four subcategories compared to boys. Also, the mothers' positive parenting attitude significantly predicted school life adjustment, academic performance adjustment, peer adjustment, and teacher adjustment. The results from the current study demonstrated that mothers'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positively affected children's overall school adjustment and that girls appeared to be better adjusted in the first and second grades of elementary school than boys. Most importantly, children with high negative reactivity are able to perform better academically than the children with low negativity reactivity when they receive positive parenting from their mothers.

Keywords: early school adjustment, positive parenting attitude, negative reactivity, difficult temperament, academic performance adjustment

